묵고은

연중 제10주일
2024. 6. 9 (나해) 제23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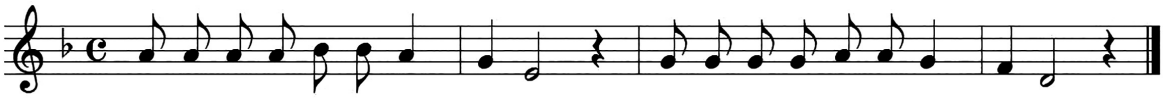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르 13, 31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
韓國天主敎會史
1874
종이에 인쇄
22,3×14.0cm
광주가톨릭박물관

입 당 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제 1 독 서 창세 3,9-15 **제 2 독 서** 2코린 4,13—5,1

화 답 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복음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복 음 마르 3,20-35

영성체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함께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발행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무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 전자우편 hongbo@gjcatholic.or.kr | 전화 062) 380-2811 www.gjcatholic.or.kr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

주성호 레오 신부
우수영 본당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들을 새롭게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시어 집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공적 활동이 시작되자,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맨 먼저 율법학자들이 안식일법을 빌미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악령이 들렸다면서,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의 친척들로부터도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방문을 받고서, 이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선포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마르 3,33) 하고 반문하시며,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 3,35)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당신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참된 가족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가족들에게는 어쩌면 섭섭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혈연에 따른 가족과 절연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참 가족임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란, 예수님께서 늘상 우리에게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7)고 말씀하셨듯이,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십자가’라는 그 은총의 선물로서 부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을 살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에 결코 비할 바 되지 않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2코린 4,16-5,1 참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시련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먼저 지셨습니다. 삶이 주는 여러 시련들을 은총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부활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참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 3,35).

내가 지구인 것을 알고 살 때

신토불이身土不二를 머리와 가슴과 발바닥을 통합해서 온몸으로 사는 것은 한편으론 쉽고 한편으론 쉽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은 큰아들이 자기는 동생과 달리 아버지 안에서 그분 뜻을 실천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머리로 알거나 가슴으로 느끼는 상태에서 자신이 신토불이를 알고 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태적 회심과 실천을 의무로 여기게 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면서도 익숙해진 생활 습관에 따라 생태적 감사와 찬양을 놓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서 땅을 딛고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물과 빛과 바람을 통해 살면서도 자기가 살게 해주는 이 지수광풍에 감사하는 태도를 지켜 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이고 계시이며 복음이자 존재의 원천인 지수광풍과 자기를 연결해서 성찰하고 이것들과 자신의 관계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화분 식물을 동반하는 일을 하면서 식물이 살게 하려고 관심도 기울이고 노력도 하지만, 그 식물이 자기에게 생명의 거룩함을 일깨워주는 친구이자 스승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땅을 딛고 산책하면서 건강을 돌보고 운동도 하지만, 자기가 딛고 서게 해주는, 곧 존재의 바닥이 되어 주는 땅에 감사하면서, 이 바닥을 매개로 하느님과 대화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신토불이를 존재로 알아듣고 "내가 지구다"를 머리와 가슴과 발바닥이 통합된 형태로 사는 이들에게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중요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감사고, 둘째는 무불안 신뢰며, 셋째는 충실한 응답입니다.

자연과 지구 생태가 아무리 파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괴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존재를 다하여 우리를 살게 하는 어머니 지구에 감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찬미받으소서 1항). 이런 점에서 자연 보호라든가 환경을 지킨다는 말과 행동이 실제로는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를 모르는 것인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 감사가 상처받은 지구와 우리를 치유해 갑니다. 또한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자 바닥인 자연 만물에 대한 신뢰 위에서 이것들을 자기에게 보내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자신의 삶과 관계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내가 지구이므로 내가 변하는 만큼 지구가 변한다는 의식으로, 자연 생태를 파괴하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도 냉소적이거나 무기력해지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태적 회심과 실천을 지속시켜 가게 됩니다(211-212항). 우리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불린 생태 사도들입니다.

황종열 레오
광주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자문위원

숨은 꽃

텃밭을 가꾸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노란 쑥갓 꽃과 하얀 부추꽃이 나풀거리는 향기 사이로 나비와 꿀벌이 날아다니던 오후의 한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뜯어온 푸성귀들은 밥상을 풍요롭게 하고 가정 경제에도 기특한 몫을 톡톡히 해주었네요.

평소 알고 지내던 자매님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미개척지를 발견하여 채소 씨앗을 심더군요. 힘들 텐데 이 일을 굳이 하시는 이유를 물었더니 이것을 거두고 나눠서 이웃들이 기뻐할 때 흐뭇하답니다. 이리도 고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 누구나 그녀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요.

베풂과 나눔으로 큰 언니 같은 아량을 갖고 계시지만 때로는 귀에 설은 소리에는 토라져서 자기 방어(?)를 하시지요. 시간이 지나 그 실수가 부끄럽다고 하면 "성인이 아닌데 어떻게 완전하겠어요"라고 가볍게 건넵니다. 저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말이지요.

소화데레사 성녀는 넘어질 때마다 어두운 얼굴로 찾아온 수도자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다는데요. 나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더욱 의탁하게 되는 신앙의 신비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토마스 머튼의 '침묵'을 마음의 눈으로 읽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상한 마음을 답변하지 않을 때는 양선함, 용서해 줄 때는 자비, 위로를 찾지 않을 때는 인내, 능력의 선물이 감춰졌을 때는 겸손, 인간의 이해를 구하지 않을 때는 신앙, 십자가를 포용할 때는 흠숭입니다. 저처럼 작은 개미가 오르기에는 너무 높은 산 같아서 지친 저녁나절에는 그만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지난봄 피었다 흩어진 이팝나무꽃 같은 정결한 침묵을 간직하면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해맑은 미소로 보는 이의 마음을 환하게 해 주던 그 자매님은 어쩌면 숨은 꽃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사람 사이에 먼저 건네던 인사, 화해, 섭섭해도 넘어가 주기, 일상의 너저분한 것들을 기쁘게 살아내고 과중한 업무에도 온유한 그 소박한 영성이 그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련을 겪더라도 하느님의 시선으로 너와 나의 부족한 점을 너그러이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매 순간 빛 쪽으로 나아가는 은총을 예수성심성월에 빌어봅니다.

김옥화 세라피나
양산동 본당

나이애드의 다섯 번째 파도

Nyad, 2023

*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2티모 4,7).

아네트 베닝, 조디 포스터 주연의 「나이애드의 다섯 번째 파도」는 세계적인 수영선수 다이애나 나이애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어린 시절 수영선수로 활약하다 지금은 스포츠 저널리스트로 살고 있는 주인공 '나이애드'(아네트 배닝 분)는 친구들의 깜짝 축하로 60세 생일을 맞이한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시집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적힌 '격정적이고 귀중한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시구절을 떠올리다 중대한 결심을 한다. 절친인 코치 '보니'(조디 포스터 분)에게 그 결심을 털어놓는다. 28살 때 쿠바에서 플로리다 키웨스트까지 177km 마라톤 수영 횡단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었는데, 다시 그 횡단에 도전하겠다는 것. 당연히 친구 보니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무모한 도전에 반대한다. 수온이 낮은 바닷속에서 이틀 넘게 계속 수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고, 여자에 노인인 그녀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평생의 꿈을 이루려 뜻을 굽히지 않고 훈련을 시작하고, 보니는 코치로서 그녀를 돕기 시작한다. 매일 수영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영하고, 훈련 강도를 높여 8시간, 24시간 마라톤 수영에 성공한다. 횡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후원사도 찾게 되면서 두 사람은 쿠바로 향한다.

2011년 8월 7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한다. 시작은 괜찮았지만, 알레르기 반응과 조류까지 바뀌며 항로를 이탈하게 되고 결국 실패한다. 7주 후 세 번째 도전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해파리에 쏘여 수영을 포기하게 된다. 다음 해인 2012년 네 번째 도전의 때를 기다리는데, 기상 악화로 수영을 할 수 없는 날이 계속되고, 스태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출발했다가 천둥 번개와 악천후에 결국 실패하게 된다.

나이애드는 무모한 네 번째 도전 때문에 보니와 멀어지게 되고, 함께 했던 스태프들도 모두 떠나 혼자 남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계속하면서, 보니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며 화해하고, 떠난 항해사에게 전화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 그리고 2013년 혼자 쿠바로 향하는데 보니와 항해사, 다른 스태프들이 한 명씩 합류하게 되고, 드디어 8월 31일 다섯 번째 도전을 시작한다. 조류의 방향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상어의 위험도 잘 넘기고 순탄하게 진행되는데, 중반을 넘어 나이애드는 체력적인 한계에 도달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때 보니는 물속에 뛰어들어 목적지가 가까웠음을 알리며 그녀를 인도한다. 드디어 출발한 지 53시간 만에 그녀는 키웨스트 해안에 도착하여 64살의 나이에 평생의 꿈을 이루게 된다.

노년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그 시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떻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쓸 것인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건강과 시간 안에서 의미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성지순례, 성경 공부, 공동체에서의 봉사, 신심 활동 등 신앙인으로서 나 자신을 충만하게 할 것을 찾아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자.

조용준 니콜라오 신부
성바오로 수도회,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장

교구장 동정

6월 9일 견진(운암동)
6월 10-11일 주교영성모임(군종교구 공군호텔)
6월 11일 사제평의회(교구청)
6월 14일 한국 가톨릭사목연구소 운영위원회 (주교회의)
6월 16일 견진(서산동)

함께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

성소국

예비신학생 월모임

일시 : 6.16(주일) 13:30
장소 : 교구청(쌍촌동)
문의 : 062) 380-2280~1

피아골피정집

피아골피정집 여름휴가 피정(접수순)

1차 : 7.26(금)-28(월) 15:00 시작
2차 : 8.3(토)-5(주일) 15:00 시작
문의 : 061) 782-5004, 010-6516-5006

사목국

2024년도 성경통독피정(9박 10일)

기간 : 7.1(월)-10(수) / 내용 : 신·구약 통독
피정비 : 60만 원 / 접수 : 6.23(주일)까지
장소 : 한국레지오마리애기념관
계좌 : 농협 351-0140-4714-53 재법.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인원 : 30명 / 문의 : 062) 380-2260

2024년도 성경통독피정(2박 3일)

기간 : 7.26(금)-28(주일) / 내용 : 시서·지혜서 통독
피정비 : 15만 원 / 접수 : 7.21(주일)까지
장소 : 한국레지오마리애기념관
계좌 : 농협 351-0140-4714-53 재법.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인원 : 30명 / 문의 : 062) 380-2260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om FM 99.9MHz FM 99.5MHz
YouTube 페이스북 광주가톨릭평화방송 OnAir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7:00, (재방송) 16:50-17:00]

6.10(월)-12(수) 김성기 신부(진도진길 본당) / 6.13(목)-15(토) 송규진 신부(사거리 본당)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종교 프로그램)' 월요일 코너 - '신부들의 수다' [6.10(월) 14:05-14:55]

교구 신부들의 유쾌한 수다 시간으로, 6.10(월)에는 운암동 출신 사제인 김재훈 도미니코 신부(2022년 서품), 김민성 요한마리아 비안네 신부(2024년 서품)와 현 운암동 본당 보좌 신부인 최성욱 도미니코사비오 신부(2021년 서품)를 초대해 신학생 시절 이야기 등을 풀어봅니다. 이 시간은 유튜브('광주가톨릭평화방송' 검색)와 cpbc빵 앱의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화면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내용은 보도제작국 062) 231-7723, 7741번, 교구 단체나 본당 소식 등에 관한 내용은 보도제작국 062)231-77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바오로 여행사(문의 : 062)381-9004 /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이탈리아 일주 성지순례 모집 중(프란치스코 교황 일반 알현)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062)380-2210~4

갤러리 玄(현) 380-2213
책더하기사랑 도서관 380-2218

2024학년도 여름학기 [12주 과정] 수강생 모집

민요 강사 : 송추월

서민의 애환을 담은 우리의 한과 얼을 소리로 표현해보는 과정입니다. 호흡법을 배우고 폐활량을 강화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강좌를 구성하였습니다.
6.13-8.29(목) / 매주 목 14:00-16:00 / 수강료 15만 원

스마트폰 활용 강사 : 임용기

스마트폰 활용하여 와이파이 찾기, 길 찾기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배워보는 알찬 강좌입니다.
6.7-8.23(금) / 매주 금 10:00-12:00 / 수강료 12만 원

※ 수강료 입금계좌 : 광주)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 문의 : 062) 380-2210~4

"상처에서 성장으로" 로고테라피(logotheraphy) 특강 안내

트라우마, 상처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신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접근하여 고통을 당당히 직면하고 이 고통을 통해 내가 회복하여 성장하는 길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강) "성장과 회복"-의미있는 삶으로의 여정 / 강사 : 김미라 아녜스 교수(현. 한국 로고테라피 연구소 소장)

· 일시 : 6.12(수) 14:00-17:00 · 수강료 : 2만 원(평생교육원 수강생 50% 할인)

감사의 말씀

지난 5월 23일 세상을 떠난 저희 모친 김순례 젤뚜르다를 위해 기도와 위로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박홍기 신부 가족 일동

교구 선교(볼리비아) 후원 안내

천주교 광주대교구 선교 후원 계좌
광주은행 170-127-003379
(재)광주구천주교(선교)
문의 : 062) 380-2821

사회복지법인 Caritas GWANGJU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빵 다섯 물고기 둘' 가족미사

나눔과 기도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감사 미사를 매월 봉헌합니다.
(*미사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 6.15(토) 10:00 (매월 세 번째 토요일 10:00)
광주권 : 임동 성당 (광주 북구 태봉로 23, 2층 소성당)
목포권 : 목포가톨릭문화회관 성당 (전남 목포시 영산로 325, 2층)
순천권 : 순천카리타스 성당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길 52)

〈후원 계좌〉
농협 605-01-353182
광주은행 019-107-310370

문의 : 062) 510-2880
(※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관·단체

포콜라레 월례모임(줌)에 초대합니다
일시 : 6.9(주일) 15:00(누구나)
Zoom ID : 876 0662 7700, 암호 : 123456
문의 : 포콜라레 062) 222-2800

성체신심 대피정
일시 : 6.10(월)
장소 : 교구청(쌍촌동) 성당
강사 : 성체조배회 담당사제
문의 : 010-3628-3596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기도(노베나)
6.11(화) 13:30 목포 가톨릭회관 2층
6.12(수) 13:30 교구청(쌍촌동) 3층 경당
문의 : 이종훈 마카리오 010-2809-4628

소화자매원 후원자 및 직원 미사
일시 : 6.12(수) 14:00
장소 : 소화자매원 지하 성당
문의 : 062) 675-4023

'하(느님 말씀) · 통(독)' 3시간 피정
일시 : 6.16(주일) 14:00
대상 : 미혼 남 · 여 청년
장소 : 사랑의 씨튼 수녀회 본원(본촌동)
문의 : 010-5528-3217

광주ME 제240차 주말 안내
기간 : 6.21(금)-23(주일)
장소 : 한국레지오마리애기념관
문의 : 010-3632-8133

2024 한국살레시오청년대회
기간 : 6.28(금)-30(주일)
장소 : 대전 살레시오교육사목센터
대상 : 가톨릭 청년 누구나
참가비 : 일반 8만 원, 대학생 7만 원
문의 : 010-9630-1988, ksyd@sdb.kr

성인 & 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 · 해외봉사
내용 : 6.29(토) 출발
지역 : 필리핀 바콜로드
내용 : 주중 영어연수, 주말 봉사활동
(봉사 인증 가능)
문의 : 대구청소년수련원 053) 593-1273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일자 : 7월 개강(각 6주 과정)
강좌 : 영성과 심리의 통합 첫 번째 길
구약성경 아카데미: 시편해설
룻을 읽자!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방법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문의 : 02) 3276-7733, center.jesuits.kr

제113차 '라 크르와' 도보 성지순례
일자 : 7.13(토) 운천역 3번 출구
장소 : 죽산순교성지(수원교구)
문의 : 성모승천수도회 010-2378-9104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장소 : 도쿄, 북해도, 가고시마, 나가사키, 오사카
순례비 : 3박 4일 120만 원(월 1회)
문의 : 010-3645-9028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 8.24(토)-25(주일), 9.21(토)-22(주일)
3박 4일 : 6.27(목)-30(주일), 7.18(목)-21(주일)
8박 9일 : 6.13(목)-21(금), 7.4(목)-12(금)
40일 : 10.4(금)-11.12(화)
장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 010-4906-5722, 031) 953-6932

제주운전기사회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 064) 758-6476, 010-4566-6476

선교 · 수도회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 6.15(토) 14:00
장소 :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 010-3800-1579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모임
일시 : 6.16(주일) 14:00
장소 : 운남동 성당
문의 : 010-5605-7097

바오로딸과 함께하는 젊은이 피정
서울 본원 : 6.22(토)-23(주일), 6.26(수)-27(목)
여주 : 7.13(토)-14(주일)
대상 : 2030 미혼 여성
문의 : 박 비비아나 수녀 010-2619-1610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 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 061) 382-2214, 010-7159-9674

미리내천주성삼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 상시, 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 미리내 수도회 본원
문의 : 성소부 이 안젤로 신부 010-5195-3217
총장 이 스테파노 신부 010-9744-2974

예수의소화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 개인적인 만남 상시 가능
장소 : 삼거동 예수의소화수녀회 본원
문의 : 010-6670-9633, 062) 673-9633

본 당

화정4동 성당 유급지휘자 모집
접수 : 6.16(주일)까지
문의 : 062) 385-2799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에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함께 바치기 바랍니다.

가톨릭 목포성지 미사시간 안내

<< 평일
- 월요일 : 06:30
- 화-금요일 : 11:00 / 16:00
- 토요일(후원회미사) : 11:00

<< 주일
- 토요일(주일미사) : 17:00
- 주일(교중미사) : 11:00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심리상담실

마음보듬

대상 : 심적 혹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신자
방법 : 전화 예약 후 상담 진행
장소 :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1층 103호
비용 : 유료
문의 : 062) 510-2890~1

2024 광주가톨릭박물관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나의 작은 지구 만들기

6월 매주 토요일
10:00-12:00 / 14:00-16:00
광주가톨릭박물관 1층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외 단체 10명 이상
신청 : 체험 1일 전까지 접수 가능
(전화, 박물관 홈페이지
www.gjcmuseum.org 를 통해 신청)
문의 : 062) 380-2295

광주가톨릭박물관
GWANGJU CATHOLIC MUSEUM

천주교 광주대교구 카카오톡 채널

교구 소식, 주보 빛고을 등
다양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대교구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TALK 카카오톡 실행
2. 천주교 광주대교구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입력
3. 천주교 광주대교구 클릭 후 채널 추가